

## ■ 2016 문학공감 스토리텔링공모전 2차 주제 심사 총평

- 사업유형 : 2016 문학공감 스토리텔링공모전
- 심사기간 : 2016. 9.26(월) ~ 10. 4(화)
- 심사방법 : 자택심사(서면심사)
- 심의위원(가나다순) : 김이설, 윤고은, 이기호, 이은선, 조해진

### 1. 심사 대상 작품 및 심의과정

2016 문학공감 스토리텔링공모전 2차주제 심사는 공모기간 동안 응모된 작품 6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다.

응모 작품들은 무기명으로 심의위원들에게 제출되었고 심의위원 각자가 심사하고 평가한 채점 결과를 취합하여 총점 상위순으로 총 20개 작품을 입선작으로 선정하였다.

### 2. 심사 총평

‘할머니’ 라는 말에는 유연한 스프링이 내장되어 있어서, 신체적인 나이나 성별을 가볍게 초월한다. 지금 여기서 두 단계를 거슬러 올라가야 닿는 그 말은 많은 이야기들의 기원이기도 하다. 그런 ‘할머니’ 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들을 읽는 과정은 풍요로웠다. 많은 작품에서 어르신들의 언어가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서 읽는 재미가 있었고, 세대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현실적인 지점들을 건드린 것도 좋았다. 같은 이야기라도 익숙한 이야기 방식을 그대로 따른 작품보다는 좀더 고유한 개성을 발산하는 작품, 옛 이야기 전달에 그치는 작품보다는 지금 여기에 미치는 영향까지 더듬은 작품에 더 시선이 갔다.

지금 우리에게 있어 이야기란, 그리고 그것을 들려주는 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심사였다. 우리 곁의 많은 이야기들이 조금 더 살갑게 다가와주기를 바라며, 도전해 주신 용기에 감사드리며 2차 심사를 앞둔 분들께는 조금 더 힘을 내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.

심사위원 일동